



2023. 7. 4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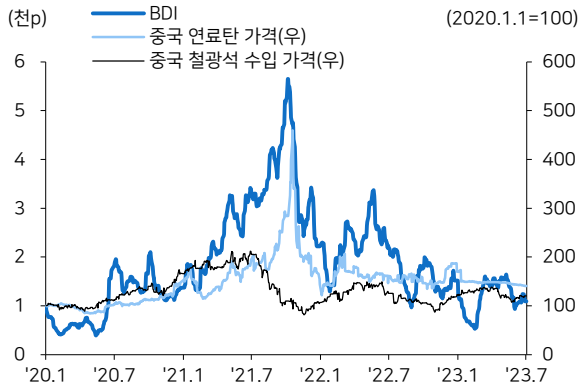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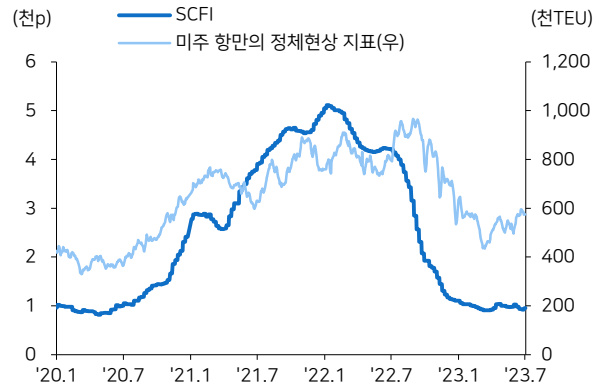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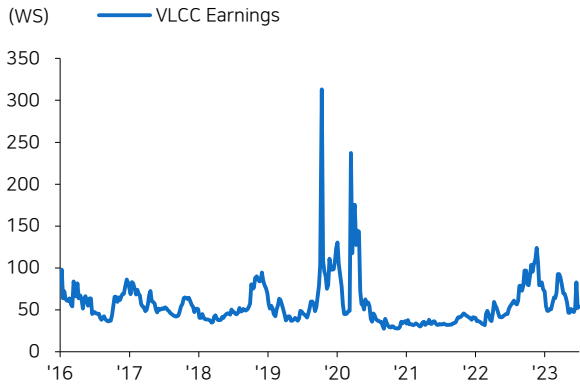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068.0p(-2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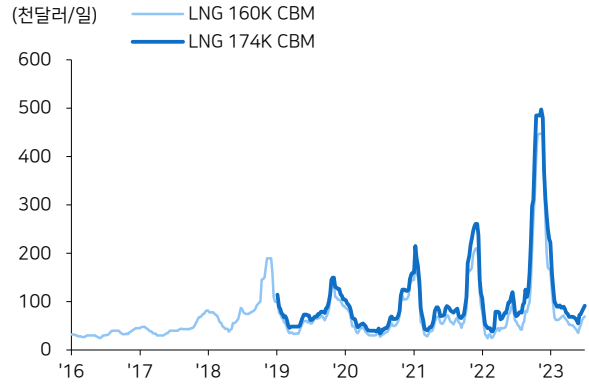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53.6p(+29.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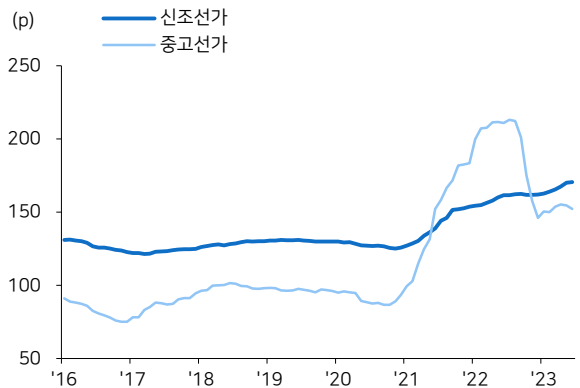
VLCC Spot Rate 54.0p(+1.7p WoW)



LNG Spot 운임 69.3천달러(+3.0천달러 WoW)
92.0천달러(+7.0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0.9p(+0.0p WoW)
152.1p(-0.0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62.0달러(-1.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한국조선해양, 3조1,209억원 규모 '수주'

HD한국조선해양이 해양설비 1기와 선박 8척 등 총 3조 1,209억원규모의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현대중공업은 Woodside Energy로부터 11.93억달러규모 FPU 1기를 수주함. 2027년 4월 인도 예정임. 현대삼호중공업은 174,000CBM급 LNG선 2척을 척당 2.61억달러에 수주함. 2027년 10월까지 인도될 예정임. 현대미포조선은 7,500CEU급 PCTC 4척을 척당 1.29억달러에 수주했는데, 2027년 6월까지 인도될 예정임. 40,000CBM급 LPG선은 척당 7,050만달러에 수주했는데, 2026년 3월까지 인도될 예정임. (이코노미스트) (<https://bit.ly/46ATeXW>)

Asian bidders line up for Petrobras FPSOs

Petrobras의 브라질 Atapu, Sepia 유전에서 사용될 FPSO 2척 EPC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됨. 7월 중 Commercial Offer를 접수할 계획으로 알려짐. Seatrium-Cosco, COOEC, CIMC Raffles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짐. 한화오션은 입찰 참여를 고민 중이고, 현대중공업은 상부구조물을 건조할 파트너사를 모색 중으로 알려짐. (Upstream)

(<https://bit.ly/3XAU6aW>)

BRS says tanker values to fall as shadow fleet scrapping rises due to waning demand

BRS는 러시아산 석유를 수송하던 노후탱커가 폐선됨에 따른 탱커 가치 둔화를 전망한다고 보도됨. 선령 15년 이상의 VLCC, Suezmax와 Aframax 모두 연초대비 12% 이상의 거래량 증가가 나타났다고 알려짐. 중고 거래된 34,000DWT급 유조선의 평균 선령은 2022년 15.1년에서 2023년 상반기 16.4년으로 늘어났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bit.ly/44qlABe>)

BRS says tanker values to fall as shadow fleet scrapping rises due to waning demand

Clarksons에 따르면,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 원유 및 석유 수요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됨. 중국은 2022년 글로벌 수입량의 24%를 차지했는데, 연초부터 석유 수요, 정유공장 가동률 및 해상 교역량 모두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됨. 2023년 첫 5개월간 여행 및 운송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석유 수요 5% 증가를 이끌었다고 언급됨. 정유공장 가동률은 우호적인 정제마진과 신규 정유공장 증가로 1~5월 기준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여름 대비 재고비축 수요가 있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shorturl.at/EMTX8>)

Eni's second East Africa FLNG project gains traction

Eni의 두 번째 수십억 달러규모 모잠비크 FLNG 프로젝트의 환경 평가 회의가 열리면서 주목 받고 있다고 보도됨. Coral Sul FLNG가 2022년말 가동되며 성공하자, JGC-삼성중공업-Technip Energies 컨소시엄에 동일한 선박을 발주할 계획으로 알려짐. Coral Norte FLNG는 3.5MTPA규모로 언급됨. 연내 FID가 내려진다면, 첫 화물은 2027~2028년 중 생산될 전망으로 언급됨. (Upstream)

(<https://bit.ly/3NY8y90>)

Chevron rubber-stamps \$570 million plan to expand output from huge offshore gas field

Chevron 및 파트너사가 22조큐빅피트 규모의 Leviathan 가스전 확장 프로젝트에 5.68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보도됨. FLNG에 기반한 확장으로 3번째 110km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1.4BCFD 확장을 계획한다고 언급됨. 2025년 하반기 첫 생산될 예정임. (Upstream)

(<https://bit.ly/3XxqYBD>)